제3회 한국현대문학자대회 '작가와의 대화'

작가 낭독 원고

1.

만약 내 이웃의 누군가가 수세에 몰려 판을 뒤집을 타개책을 바랐다면, 못마땅한 현실을 대번에 꿰맞출 거대하고 속 시원한 음모론을 갈구했다면, 자신 외의 모든 의견을 발밑에 두고 반대파를 단방에 쓸어내고 싶었다면, 그 하나하나의 계엄이 뭉쳐 오늘날의 폭발물로 터진 것이다. 크든 작든 우리는 그 파편에 데고 찢기며 일상이 뒤흔들렸다. 공동체로 묶여 있는 한 누구도 계엄 바깥에 머물 수 없었다. 그렇다고 특정 집단의 괴물 같은 도발로 한정 지어 계엄 세력과 개인 사이에 담벼락을 둘러칠 수도 없다. 선량한 개인이 개인으로 그칠 수 있는 것 또한 혜택이며 행운임을 깨닫는다. 그러나 동시에, 인류 최악의 학살은 그 하나하나의 얼굴이 집단이란 단일한 표정 안에서 뭉개져 추상화의 도취가 극에 달했을 때 뒤따라왔음을 기억한다. 천황을 위해, 게르만 민족을 위해, 신의 뜻을 받들어. 그중 어느 하나도 완전히 인류의 바깥으로 쫓아내 없앨 수 없었다. 사랑이 진실이라면 증오 또한 진실이며 나는 그 양쪽의 결과물이자 대물림의 연결 고리다. 그러므로 괴물은 내 이웃이고 계엄 또한 나의 일부다. 계엄은 여럿의 꿈이자 열망이었으며 제발 누구 하나라도 터뜨려주길 바라는 집단의 충동이었다. 그렇지 않은가. 그렇지 않다면 계엄이 있어야만 했다는 합리화의 목소리는 어째서 예나 지금이나 점점 더 커지는가.

김멜라, 「계엄 파편」(『문학과 사회』 149호, 2025, 봄, 하이픈, 19~20쪽) 중에서

2.

사람들의 오해와 비난은 두렵지 않아. 오히려 밤하늘의 폭죽처럼 우리를 에워싼 암담함을 요란하게 깨우는 것 같아 쓴웃음이 나기도 하지. 스물둘, 표정도 마음도 훤히 비쳐서 살아갈 날의 아픔에도 투명하게 무지했던 나. 나는 그때의 나에게로 가서 말해주어야 해. 일출과 월출, 노화와 유화…… 너의 일부는 찢기고 멍들겠지만, 그 아픔의 길을 통해 또다른 빛이 떠오르고 있다고. 너의 몸이 늙고 쇠약해지는 동시에 너의 꿈은 점점 더 힘차고 선명해지고 있다고. 그러니 부디 너에게 덮쳐오는 미움과 증오를 똑같이 반복하지 말라고. 그 앙갚음의 고리를 끊어버릴 단단하고 빛나는 칼을 손에 쥐라고. 엎드려 신음하기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흐름을, 너를 부르는 소리를 따라가라고. 설령 그 행로 끝에 상처투성이 너 자신을 보게 되더라도, 너는 한기연이 있는 그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야 한다고.

김멜라, 『리듬 난바다』(문학동네, 2025, 140쪽) 중에서.